

### 종립학교를 가다

(13) 흥제중학교

임진왜란 당시 구국구민(救國救民)을 한 사명대사를 모시고 있는 호국불교의 근본도량인 경남 밀양 표충사. 흥제중학교는 표충사의 사재출연으로 1948년 영정고등공민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교육을 통한 구국을 천명하며 설립됐다. 표충사 경내에 임시교사를 설치해 지역주민에게 교육기회를 제

공하며 인재양성을 시작한 이후 54년 중학교 승격과 동시에 사명대사의 '자통호제존자'라는 시호를 딴 교명 변경, 72년 동국학원에 병합되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또한 교사를 현재의 경남 밀양시 단장면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부다피아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미술'

### 정통부 청소년 권장사이트 선정



현대불교 사이트인 부다피아의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미술' (www.buddhapia.com/buddhapia/kor/hanbul/culture/art/)이 1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위원회가 선정한 '9월의 청소년 권장 사이트'에 선정됐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정보통신위원회가 여행, 문화,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된 사이트 20개를 매달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뽑힌 부다피아 '사찰...'에는 사찰에 있는 탑, 불상, 탱화 등 불교 미술에 관한 풍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또 최우수 사이트에는 현재는행원이 제공하는 세계화페 갤러리인 '세계 화페 박물관'이, 우수사이트에는 미국여행과 실전정보를 제공하는 '유학하나, 여행둘'이 각각 선정됐다. 김주일 기자 jim@buddhapia.com

## “안녕하세요” 인사 대신 “효도합시다”



흥제중학교는 독특한 충효 및 인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심성을 밝히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화와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사명대사의 정신을 계승, 선양하기 위해 실시되는 충효교육은 흥제중학교만의 특색. 모든 예절의 기본인 인사를 '안녕하세요' 대신 '효도합시다' 답례 또한 '효자합시다'로 하고 있고, 매 학기말 시험이 끝나면 표충사 설립전에서 효도캠프를 실시하는 등 효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다. 더불어 사명대사의 제향(祭享)을 올리는 춘추 향사에 참석,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개최해 충효정신을 되새기고 매주 수요일에는 부모님, 스승, 친구들에게 편지쓰기를 실시해 보은의 참 의미를 심어주고 있다.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지혜와 자비라는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우선 10년전부터 아예 반말을 펼치지 않는 정서,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반으로 바꾸었다. 선생님들은 신입생들에게 가장 먼저 반말을 설명하며 펼치지 않는 의미를 가르친다. 이는 3년동안 반 이름을 부르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훈습이 되어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불어 매월 2,4주 목요일에는 전교생이 참석하는 선정조회를 개최, 부처님의 자비심을 갖도록 하는 발원문을 작성하여 봉독하고 있으며 '꿈 찾는 나의 생활'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흥제중학교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소풍과 수학여행을 없앴다. 대신 '나를 찾아서, 선조를 찾아서'를 주제로 향토순례대행진

### 표충사 후원 1948년 개교 수학여행 대신 향토순례

### 캠프·백일장 등 효 생활화 10년간 퇴학생 전향없어

을 떠난다. 호남권, 동해 및 강원권, 중부권으로 나누어 매년 한 권역을 돌아보고 선조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향토의식과 향토애를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소풍을 대신해 환경보존 및 등반대회를 갖는다.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며 집단 과정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 성찰과 자아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 최근 10년간 자퇴나 퇴학당한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흥제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를 대변해 주고 있다. 시골에 위치한 학교특성상 주위에 학원이 나 기타 교습소 전향 없다. 그래서 흥제중학교는 개별화 교육과 정보화 교육에 많은 공

을 들이고 있다. 개별화 교육은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 동아리를 활용해 담임선생님들이 매일 방과 후 학생 개인별 능력과 흥미에 맞게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인의 소질 및 능력을 개발하고 더불어 기초학력까지 증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교육 결과 과학경시대회, 미술대회 등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학교가 모든 지역 교육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학부모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고가의 컴퓨터를 구입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지역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지난해 동국대 전자제산원의 후원으로 컴퓨터 100대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또한 초고속망 설치 등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 홈페이지(http://211.34.223.245/)는 물론 다수 선생님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교육정보를 주는 등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한때는 재학생이 1천명이 넘을 정도로 지역에서는 가장 큰 학교였던 흥제중학교, 지금은 이화현상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6학급에 전교생 151명의 조그마한 학교로 변했다. 하지만 이상자 오복원 스님과 전교직원들이 합심하여 교육에 매진한 결과 작지만 실력 있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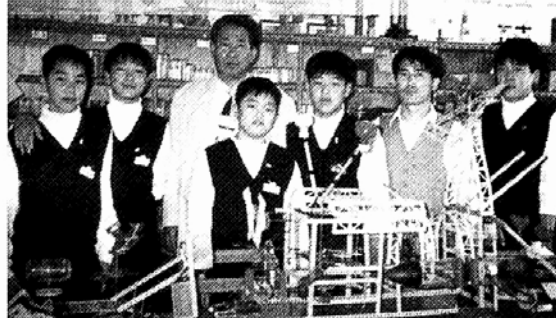
### “효는 백행의 근본이죠”

#### 흥제중 배중우 교장



지·덕·체를 고루 갖춘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하고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구하는 학생중심의 교육이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배중우 흥제중학교 교장은, 사명대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충효교육이 흥제의 자랑이라고 말한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말처럼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성을 심어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효도합시다' 선창 인사제도와 효도캠프 등 충효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인성교육이 학생들의 심성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특히 정보의 홍수속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배 교장은 학생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컴퓨터 관련 및 인터넷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시골학교'라는 지역적 한계로 도시에 비해 다소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하지만 학생들에게 무료로 컴퓨터를 나누어 주는 등 정보화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과학경진대회 4연 연속 최우수상

#### 흥제중 자랑거리

흥제중학교의 과학교육은 다른 학교와 다르다. 일반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고려한 토의식 수업,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등 다양하게 진행한다. 또 방과 후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과학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개별지도를 하고 있다. 그 결과 과학적 소

질을 개발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과학 경진대회 시 대회에서 4연 연속 최우수상 수상했고, 올해도 대회에 출전 4개 분야에 입상하는 등 과학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창원의 초등학교들이 지난 여름방학동안 흥제중학교에서 과학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등 과학 명문 사학이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고 있다.

### 교법사실에서 하용식교법사

### “더불어 살아야... 문제야 더 관심”

“요즘 학생들은 자기 밖에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충효보은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교학수업 시작에 앞서 '내탓이요, 내덕이요'를 선창하게 합니다.”



78년 부임해 줄곧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하용식 교법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교학시간을 통해 내게 소중한 것이란 남에게도 소중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어린시절 가정형편으로 어렵게 공부를 마친 하 교법사는 공부 잘 하는 학생보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소위 문제아로 불리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 상담교사, 특수교사, 환경교사 자격증을 따는 등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학생들과 격식 없는 친구처럼 지낸다.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스스로없이 말하는 하 교법사는 학생 및 교직원 교화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불교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며 지역불교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⑮



#### • 스트레칭 •

1.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양손을 단전에 모은다.
2. 단전을 수축한 상태에서 양 무릎을 구부리고, 오른발의 무릎을 펴서 앞으로 내밀어 발뒤꿈치부터 서서히 땅에 닿게 한다.
3. '이' 소리를 내면서 몸을 앞으로 움직여 몸의 중심을 이
4. 다시 몸의 중심을 천천히 이동하고, 이 상태에서 다리들 다시 뒤로 당겨서 원발 옆으로 내린다.
5. 다시 양손을 단전에 모으고, 처음의 상태에서 '뽀' 소리를 내면서 반대편 다리로 반복한다.

##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http://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http://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http://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똑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매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